

5·31 후폭풍... 부동산 등 경제정책 혼돈

경제정책이 혼돈에 빠졌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여당은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가 하강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본격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이런 혼란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개혁 추진에 차질**=정부는 중장기조세 개혁방안,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조세개혁방안과 자영업자 과표노출방안은 이날내에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서는 잡지 않은 분위기다.

5·31지방선거 후에는 이런 개혁조치들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담당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조세개혁 조치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손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정책 수정 놓고 黨政갈등... 불확실성 증폭

조세개혁 추진 차질·부동산 정책도 혼란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 정치적 고려로 인해 공청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세개혁 방안은 결과적으로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여당에 또다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를 모른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도 혼란**=여당이 부동산정책을 손질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나왔던 매물이 다시 들어가는 등 수급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여당에서는 ▲5·31 부동산종합정책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거래세 인하 폭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기

존의 골격을 유지하되 실수요자나 노령층 등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납부시기 연기) 등 세부담 완화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당의 정리된 의견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개인 견해인 경우가 많아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당내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통일된 방향이 없다"면서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든지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냥 두자니 여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를 만들어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검토한 방안들을 수용한다면 정부의 원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경제 리더십 필요"**=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스런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의 경제리더십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잘몰랐다고 평가한 만큼 이런 혼란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여당과 청와대가 부동산 등 각종 경제문제를 주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부의 총괄기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경제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서 국민이나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아파트 분양시장 '찬바람'

정부 집값 잡기 영향...상반기 36% 그쳐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3분의 1가량만 분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올 상반기에 총 22만1천12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분양에 들어갔거나 이달말까지 분양할 물량은 7만9천40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연초 계획 대비 35.9%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예정물량 7만7천564가구중 2만5천799가구(33.3%)가, 지방에서는 13만5천676가구중 4만9천493가구(36.5%)가 각각 분양됐다. 서울만 놓고 보면 7천844가구중 4천108가구(52.4%)가 분양돼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분양을 실시한 아파트중에서는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도 상당수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률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초 계획대비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의 강도높은 집값잡기 정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게 더 큰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마케팅 팀장은 "분양시기 잡기가 올해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면서 "분양시장은 원래 3월부터 성수기인데 판교 중소형 광명 분양이 3월에 있었던데다 정부의 3.30 대책 발표와 버블 경고, 월드컵축구대회 등 분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임대 관리비 줄어든다"

주공 5만가구 통합관리...인건비 절감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만 가구를 7천~1만5천가구 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크게 줄어 가구당 연간 6만2천원의 관리비 절감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관리효율화를 위해 현재 단지별로 관리하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방식을 1만가구 내외의 광역 관리방식으로 전환,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올해 입주하는 의정부 권역 1만5천가구, 파주권역 7천가구, 화성권역 8천700가구, 용인 권역 8천400가구, 광주·전남권역 1만1천가구 등 4만9천100가구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들 권역에서는 앞으로 주공이 권역별 아파트 통합관리센터인 '광역운영단'을 연말까지 설치, 임대 및 시설관리 등을 맡아 직접 운영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광역관리를 적용하면 현재의 단지별 위탁운영방식보다 연간 29%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져 가구당 6만2천원의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며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소 운영주체가 달라졌을뿐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월 수입물가 11.3% 급등

1년7개월만에 최고...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크게 올라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의 국제시세가 급등하면서 수입물가가 1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06년 5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00년=100)는 119.68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3%나 급등했다. 이는 2004년 10월에 기록한 16.8% 이후 가장 큰 상승폭에 해당한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원유와 비철금속소재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작년동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0.2%를 기록한 후 2월 8.5%, 3월 5.7% 등으로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했으나 4월 6.1%, 5월 11.3%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2.2%를 나타내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수출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6% 상승, 2004년 11월(5.1% 상승) 이후 1년반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월대비 수출물가 상승률도 1.3%를 나타내 석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해 수출물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수출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수출품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수출물가가 모처럼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가래떡 먹고 힘내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13일 토고전을 앞두고 광주월드컵 경기장 응원전에서 가래떡·우유 4천개를 나눠주고 멜론·김치 등 10개 품목 전시행사를 가졌다.

(전남농협제공)

"금리인상 따라 성장 둔화"

세계 주요 투자은행 "내수·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이 하반기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금리인상 등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1년간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옥스포드 분석원(Oxford Analytica)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금리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둔화된다면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먼브라더스는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올해 중으로 더이상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이달 금리인상의 골

리 인상으로 투자와 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금리인상이 내년 중반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금리인상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조정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부동산과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세를 이끌어 왔다"며 "따라서 최근 주가 조정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이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금리인상)이 시기적으로 완화기에 기초와 주가급락장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외"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환율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연내 주가 0.25% 포인트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이달 금리인상의 골

/연합뉴스

반등기대 꿈틀... 틈새 테마주 노려라

바이오·장마·월드컵 관련주 주목

단기 낙폭 확대로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동안 소외됐던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 AI 테마 재부상** = 14일 코스닥시장에서는 "부동산과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세를 이끌어 왔다"며 "따라서 최근 주가 조정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이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종항진 접근** = 그러나 기존 테마주들의 재부상은 새로운 재료가 부각됐다기보다는 바닥권 인식의 확산과 함께 금리인상 소나기를 피해 이탈했던 투자자금들이 증시로 돌아오면서 반등 탄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틈새 테마 노려볼만** = 증시의 단기 반등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계절적인 재료를 가진 틈새 테마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한 틈새 테마주로는 이번 주말부터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진입하는 것을 감안한 장마 관련주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월드컵을 겨냥한 월드컵 수혜주가 거론되고 있다.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조류독감(AI) 테마도 중국에서의 의심환자 발생 소식과 함께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동물 의약품 업체인 대한뉴팜** [054670]은 1.81% 오르며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틈새 테마 노려볼만** = 증시의 단기 반등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계절적인 재료를 가진 틈새 테마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한 틈새 테마주로는 이번 주말부터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진입하는 것을 감안한 장마 관련주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월드컵을 겨냥한 월드컵 수혜주가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 서울대에 예술기금 50억 지원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빠른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박삼구 회장과 정은찬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예술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금호예술기금의 전체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그룹측은 이날 30억원을 서울대에 전달하고 나머지 20억은 내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은 서울대의 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음대와 미대 지원



박삼구 회장

에 절반씩 사용될 예정이다. 박삼구 회장은 "그들은 창업회장과 고 박상용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그들이 천명한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의 하나이며, 앞으로 7대 과제를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삼진MPS	GS계열사 임원보조직 경력지원(여수)	고졸/경력5년	2,600~2,800	06/15	02-558-3385
엠엘에이트	인테리어시공, 설계, 3D 실장급, 팀장급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11-645-1115
오뚜메디칼	병,의원및 한의원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7	062-572-3448
LGO노텍	LGO노텍 사무지원 & 임원비서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8	062-950-0458
한국국제티비	총무, 구매담당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9	061-798-1734
코지전자	물류배송/인터넷소핑물운영관리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6/19	062-513-3600
기아자동차 대리점	기아자동차 대리점 신입/경력 영업직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6/19	02-518-1654
수인산업	시술제조 경력직	고졸/경력2년	1,800~2,000	06/19	062-956-4011
잡코리아(광주,전남지사)	취업관련프로젝트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0	062-512-6222
뉴에이스	하노텔호텔 광주고객센터 인바운더 전화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20	031-267-1863
오토하우스	자동차용품 장착관련 경력 및 신입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1	062-362-7288
바이오닉스	생산기술팀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1	062-973-88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은행권 수수료 담합 조만간 정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조만간 정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불공정행위에 이은 담합조사에 대해 "금융과 통신, 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에 경쟁우위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